

# 광림 뉴스레터

## KWANGLIM NEWSLETTER

제31회 호렙산 기도회

**회복**  
RECONCILIATION  
“다시 하나 되다”  
6.3~7.12  
매일 새벽 4:45



## 40일간 기도의 대장정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다!

〈제31회 호렙산 기도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뜨겁게 진행 중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광림의 교우뿐만 아니라 2만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다.”**

6월 3일(월)부터 시작한 〈제31회 호렙산 기도회〉가 7월 12일(금)에 성만찬을 나누며 종료한다. 광림교회 대예배실에서 새벽 4시 45분부터 시작하는 호렙산 기도회는 광림남교회, 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에서 함께 진행되며, 인터넷방송, 유튜브,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광림의 교우뿐만 아니라 2만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의 주제는 ‘회복(RECONCILIATION), 다시 하나 되다’이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시 147:3)가 2019년 호렙산 기도회의 주제 성구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은 실의와 좌절에 빠졌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은 곳이다. 이 부르심의 산 호렙에서 올해로 31년째 진행되고 있는 호렙산 기도회는 김선

도 감독님이 11년을 인도하셨고, 김정석 담임목사가 20년째 인도하고 있다. 호렙산 기도회는 지난 1989년부터 매년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40일 동안 진행되며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개인을 위한 전교인 총력 새벽기도운동으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이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 기간 동안 김정석 담임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소망하면서 ‘네 가지의 회복’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 1~2주차에는 기도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전했다. 우리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다윗, 모세, 다니엘, 요나, 한나 등의 기도를 통해 성경 속에서 이

루어진 기도응답의 역사를 보았다. 3~4주차에는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의 회복, 하나님께로의 회복이 주제였다. 이에 하나님의 공의로, 바른 가치관으로 이 나라의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길 기도했다. 5주차에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나오는 요한계시록으로 말씀의 주제를 삼는다.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 6주차에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토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주제로 기도회를 할 예정이다. 2019년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한지 처음 5일간 17개국(그리스, 터키, 아랍 에미리트, 싱가포르, 모로코, 일본, 스페인 등)에서 4,800명이 인터넷 방송에 접속하여 계속 증가 중이며, 6월 25일에 집계된 인터넷라이브 방송 시청현황은, 유튜브(YouTube) 인터넷 라이브방송으로 35개국(네덜란드, 영

국, 러시아, 베트남,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총 15,791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YouTube) 라이브 시청수는 총 4,934명이며, 유튜브 VOD는 총 19,065명이 시청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시청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1992년부터 1995년까지 호렙산 기도회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예정이다. 호렙산 기도회는 광림교회의 자랑스런 전통이다. 40일간의 기도의 대장정을 마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변영혜 기자 yhbyun1010@hanmail.net



# 자유케 하는 진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31~36)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그저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식, 철학, 사회의 관계성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체험할 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할뿐 아니라, 저주와 사망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영적인 자유함 없이는 양심의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 없이는

“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

정신적 자유도 없을 뿐 아니라, 경제와 정치적인 자유도 없습니다.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뿌리는 영적인 자유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기독교의 자유 선언은 내가 스스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므로 “나는 자유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게 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참된 자유를 누리며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자유는 값을 치른 자유입니다.

본문 36절을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 얻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것을 예수님의 인카네이션(Incarnation), 성육신이라고 했습니다. 성육신을 가리켜 인간 역사를 깨뜨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와 정욕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



요한복음 8:31~36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3.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으며,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농사짓는 분들은 논에서 수령을 본적 있을 것입니다. 수령에 가면 말뚝을 박아서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혹시 밭이 빠지게 되면 수령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빠져드는 게 수령입니다. 수령에 빠지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절대 혼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줘야 할 이가 필요합니다. 그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안에 사는 삶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둘째,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속에는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선 진리 편에 서야 함을 알려줍니다. 또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 주관화되고 실천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자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스스로 십자가의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인간의 선택에는 몇 가지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동물적 동기입니다. 본능에 따라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동물적 충동에 의해 선택하며 삽니다. 두 번째 동기는 도덕적 동기입니다. 도덕적 동기를 무시

하고 살 때 인간은 부끄럽고 비참해집니다. 세 번째 동기는 차원 높은 동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동기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거룩한 담대함이 생깁니다. 주님의 뜻이기에 용기 있게 나아가고 그 결과 거기에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용기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셋째,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34절을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 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씀은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분명히 말합니다. 욕심을 따르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전에는 너희가 죄와 진노의 삶을 사는 노예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종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끌려다니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참된 자유를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포하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동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 때 용기가 생기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자유를 가진 자로 신앙적 선택을 하고 나아가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목회연구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102-2056-5730



# 이 땅의 번영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

6월 26일(수) 광림교회 본당에서 <6.25 상기 헌신예배> 열려



김정석 담임목사, '여호와께 속한 전쟁' 말씀 전해  
한국예비역 기독교군인회 연합회가 주관하는 <6.25 상기 헌신예배>가 예비역 기독교군인을 비롯하여 광림교회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26일(수) 저녁 7시 30분 광림교회 본당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이날 김정석 담임목사는 '여호와께 속한 전쟁'(삼상 17:41~49)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인류 역사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날은 불과 286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이 땅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고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세운다"고 하였다. 또한 "성경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로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이다. 평소 다

윗은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기도하였으며, 이러한 기도가 다윗의 최대 능력이자 힘이었다. 둘째, 지난 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힘있게 된다. 셋째,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는 담대함과 용맹스러움을 얻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1956년 창설된 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연합회 광림교회 군선교위원장인 이기식 장로의 인도로 진행된 특별기도 시간에는 '국가안보와 국가지도자를 위하여', '군복음화를 통한 민족복음화, 세계 군선교를 위하여', '광림교회 비전 성취를 위하여'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순서를 가졌고, 이어 ROTC 기독교교회 찬양단이 '십자가 군병'이란 특별찬양을 들려 주었다. 이번 헌신예배를 주관한 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연합회는 지난 1956년 '기독교교회'란 이름으로 창설되었으며, 그동안 국내외 30개 지회 활동을 통해 기독교장병 구국성회, ROTC 후보생 세례식, 세계기독교군인대회 개최 등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광림교회는 삼일절, 광복절 등 기념일에 태극기를 향해 애국가를 부르는 등 항상 나라사랑의 마음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현재 매일 새벽 4시 45분부터 진행되는 호렙산 기도회 기간 중에도 가장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 포토 뉴스



UMC 선교국 총무 토마스 챔퍼 설교  
6월 17일 주일 UMC 선교국 총무 토마스 챔퍼가 4부예배에서 말씀을 전했다.



솔트 플랜 4기 9차 모임  
6월 17~18일, 비전교회를 위한 솔트 플랜 4기 9차 모임이 광림수도원에서 있었다.



국내 교육선교 사진전  
청년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선교 사진전이 본당 로비에서 전시되고 있다.

## 한국교회에 쓰임 받는 <광림수도원 대성전> 리모델링 공사

지붕 철거와 구조 보강작업 등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 중



광림수도원 대성전 리모델링 조감도

광림수도원은 지난 3월 살롬하우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은혜롭게 봉헌한데 이어 5월부터 대성전 공사를 시작했다. 외부의 붉은 벽돌과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며 내부 시설 리모델링이 한창이다. 광림수도원은 지난 30년간 시설을 개방해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말씀의 영감과, 갈급한 성도들에게는 기도, 쉼을 통해 영적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섬김의 장소로 쓰임 받고 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이 공사를 위해 "수도원 공사가 하나님 역사로 아름답게 봉헌되어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한국 교회에 쓰임 받는 거룩한 기도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호렙산 기도회

때마다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한다. 광림수도원 공사를 담당하는 안경섭 장로(건축위원회 위원장)는 "현재 수도원 대성전 리모델링 공사는 주님의 은혜로 공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거공사가 마무리되고, 지붕공사를 장마 전에 끝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성전은 1, 2층으로 나뉘게 되는데, 2층 슬라브 공사를 위해 현재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 내부 설계는 제단 뒤편의 석재 벽면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제단을 넓게 키워서 다수의 찬양단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전 창호의 전체적인 형태는 유지하되 커다란 유리교 교체하여 외부의 자연을 큰 그림처럼 시원하게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1층은 400여 석의 예배실과 2개의 세미나실, 지하에는 소예배실과 세미나실, 성만찬실 등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층과 3층 개인기도실은 유지될 것이며, 냉난방시설이 신설됩니다. 외부의 붉은 벽돌과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며 손상된 부분은 수리 및 교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광림수도원 리모델링을 마치게 되면 외부의 형태는 큰 변화가 없지만 대성전 본당은 1, 2층으로 분리되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단열과 방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쾌적한 예배와 집회를 진행할 수 있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큰 쓰임을 받을 것이다.  
광림수도원에서 시무하는 신성섭 장로는 "5월 13일 대성전 공사를 시작하여 6월 중으로 모든 철거 작업을 완료합니다. 7월부터는 1층 골조 작업과 구조보강 공사, 철골보강 작업, 지하층 전반 방수 작업, 외벽 벽돌 보수 작업을 하고 지붕 아스팔트 성글은 7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연결통로 방수 및 보호벽돌 시공, 알루미늄 창호 발주, 기계설비 배관 작업, 전기 배관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라며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공사가 완공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대성전 공사 진행과 예정 상황을 전했다.

이상희 기자 shlh616@naver.com

## 담임목사 동정



- 6/3~7/12 제31회 호렙산 기도회
- 6/20 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 설명회
- 6/26 6.25 상기 헌신예배
- 6/27 육사 신우희 예배
- 6/30 원로장로회

## 감독 동정



- 6/3~7/12 제31회 호렙산 기도회
- 6/16 광림서교회 주일예배
- 6/23 광림북교회 주일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내 인생의 말씀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6, 4:13)

6.25 사변 후, 6살 눈에 보이는 것은 폐허된 모습뿐인데, 늘 손에 검은 표지의 빨강 물감이 든 책 한 권을 들고 하루도 빠짐없이 집 앞을 지나가시는 아저씨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책이 궁금했던 저는 그게 뭐냐고 여쭙었더니, 성경책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책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저에게 주시면 안 되나요?” 했더니, “이 책은 내가 써야 하니 다른 책을 주겠다”며 다음 날 가져다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분은 교회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저는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 교회에 발을 디디면서 배웠던 말씀 외우기, 울동을 토대로 어린이 부서에서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말씀 듣는 귀도 열리고 작은 믿음이 싹트고 있을 때 고학년반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말씀 가르칠 능력이 부족했던 저는 부담이 되어 교사를 그만 두어야겠다며 갈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중학교 때 교사하겠다는 마음 어디에 두었니?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시며 붙잡아 주신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13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위로 받았고 하나님께 어려서 교사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교회학교 교사를 하던 중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폐암 판정을 받게 되어 담임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수술했습니다. 수술 후 건강이 쇠약해진 저는 고통을 감당하기가 힘들어 또 한 번 교사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너는 그 병으로 망하지 않아.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로 간구하라”시며 빌립보서 말씀으로 또 한 번 담대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 후 건강 때문에 속초로 내려와 생활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족함은 감추시고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기쁘게 은혜 받고 기도하라며, 주일 새벽 3시만 되면 알람을 켜지 않아도 깨워 주셔서 광림 제단으로 발길을 인도해 아이들을 만나 섬기게 하십니다.



강태분 권사(고등부 교사)

[찾아가는 인터뷰 7회]  
김이선 성도 (청년부)



파워크리스찬 배우부터 인기 TV프로그램 <수미네 반찬>에서 요리보조 역할로 나오는 청년부 김이선 성도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며 연기와 영적인 몸짓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신실한 청년이다. 인생길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간증하는 김이선 성도를 만나보았다.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을 따라 광림교회에 출석한 지 25년째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주신 헌금을 가지고 도망가던 말썽꾸러기였어요. 성인이 되어 청년부로 올라오면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기에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저를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어떤 공동체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나요? 대학공부를 마쳐갈 때쯤 진로고민과 관계성 고민이 심각하게 찾아와서 광림교회를 떠

무대 위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전하는 배우랍니다

나려고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교회를 떠나지 못하도록 저를 붙드셨어요. 이 곳에서 견뎌야만 다른 곳에서도 견딜 수 있다면서 더욱 공동체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청년부 LF 미니스트리 콰이어입니다.

LF미니스트리 콰이어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5부예배 찬양사역팀이에요. 찬양, 밴드, 워십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는 찬양사역을 하고 있고요. LF미니스트리는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음악은 잘 모르지만 함께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더욱 강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다 보니 사회에서도 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연기를 전공하셨는데, 요즘 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작년부터 TV 프로그램 <수미네 반찬>에서 요리보조 역할을 맡고 있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고정 프로그램이 되었고, 일년이 넘는 시간을 출연진들과 함께 하며 많은 것을 배워 나가는 중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인도하심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연기를 전공하고 진로 결정 후 살아가는 지금까지도 일을 할 때마다 저에게 특별한 달란트가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더 능력 주시기를 기도해요. 한계를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인도하십니다.

광림교회 <파워크리스찬>에서 매년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아 공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시나요? 파워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대 위에 다양한 그림으로 그려지는 아주 귀한 문

화사역 공동체예요. 만남의 축복과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했던 제 기도의 응답이 된 곳이에요. 친한 언니가 크리스천 문화의 중요성을 마음에 두고 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해줬어요. 오디션을 보고 매년 참여하게 된 것이 벌써 6년이나 되었네요. 저도 이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니까지는 3년 정도 걸렸던 거 같아요. 작품에 따라 준비기간이 다르지만 주 2~3회씩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연습해요. 연습 전 말씀 나눔과 체력훈련까지 빠지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작업에는 어떤 식으로든 많은 생각들이 충돌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그림이 아닌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작년 ‘늬은 도둑이야기’와 올해 ‘2019 빈방’을 통해서 막이 오르기 직전의 소망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꿈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계획과 기도제목은?

저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매일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이 많아서 하기 싫다고 뽀를 쓰기도 해요. 하지만 무대 위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의 심장을 뛰게 하고 꿈꾸게 하십니다. 어떤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기대해야 하는지,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더욱 구하며, 사람을 낚는 배우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섭리를 따라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백명순 기자 bmssoon@naver.com

애니메이션 <천로역정 : 천국을 찾아서>



영문학의 시초가 될만큼 뛰어난 가치 지닌 작품 희망도, 기쁨도 없는 멸망도시에서 살아가던 ‘크리스천’은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통해

천국도시가 존재하며, 곧 멸망도시가 불바다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바깥 세상은 죽음뿐이라는 모두의 만류를 뒤로하고 ‘크리스천’은 천국도시를 찾아서 모험의 길로 접어 드는데...

최근 개봉한 <천로역정 : 천국을 찾아서>는 영국 작가 존 번연의 소설 <천로역정>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으로도 유명한 <천로역정>은 전 세계에 2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는 등 영문학의 시초가 될만큼 뛰어난 가치를 지닌 기독교 문학의 최고 고전이다. 소설 <천로역정>은 ‘크리스천’의 여정을 담은 상권과 ‘크리스천’의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그의 뒤를 쫓아가는 여정을 담은 하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화 <천로역정 : 천국을 찾아서>는 상권의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였다. 한국어 더빙은 주영훈, 김효진, 성대현, 정범

균 등이 재능기부로 참여했으며, 6월 13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했다. 특별히 이 영화는 수익금을 통해 100여 개의 언어로 번역하여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예정이다.

[상영 극장 정보]

- 6/30(주일) 대한극장 17:05  
롯데시네마 (브로드웨이신사) 10:20~  
롯데시네마(건대입구) 10:45
- 7/1(월) 롯데시네마(용산)  
11:40 (우리말 녹음)  
16:40 (우리말 녹음) / 21:40  
필름포럼(신촌) 10:00 / 13:10 / 17:00
- 7/2(화) 필름포럼(신촌) 10:00 / 17:20  
서울극장 20:15
- 7/3(수) 필름포럼(신촌) 12:30 / 16:00 / 19:40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 “Wake & Walk,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요”

〈2019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7월 12일(금)~8월 4일(주일)



믿음의 다음세대를 이어갈 자녀들에게 미래의 밝은 꿈을 심어 줄 <2019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가 교회학교 부서별로 7월 12일(금)부터 시작된다. 교회학교가 끊임없는 기도와 알찬 프로그램으로 매년 여름수련회를 여는 것은 자녀들에게 영적인 변화와 도전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평생을 함께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직접 체험하며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줄 것이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Wake & Walk’라는 큰 타이틀 아래, 영유아유치부는 ‘출동! 탐정 베드로’, 아동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요’, 중등부는 ‘답은 지저스’, 고등부는 ‘살다 살리다 살아가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중고등부는 학년에 맞는 좀 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 예년과 달리 각각 비전랜드와 광림수도원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

나 걸으라”는 말씀이 주제 성구이며, 성전 미문의 앓은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베드로의 치유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함께할 2019 여름성경학교는 세상을 치유하는 빛과 소금 같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좌충우돌했던 삶의 역경을 이겨내며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베드로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 이 세상을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강명남 목사(교육1부)는 밝혔다.

각 부서별로 교사, 위원장, 교역자들은 한 마음으로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며 알차고 은혜로운 수련회 준비를 위해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감태오 교사(중등1부장)는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예



배에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며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전했다.

영아부 : 7월 13~14일(광림교회)  
 유아부 : 7월 20~21일(광림교회)  
 유치부 : 7월 20~21일(비전랜드)  
 유치3부 : 7월 27~28일(광림교회)  
 유년부 : 7월 12~14일(비전랜드)  
 초등부 : 7월 19~21일(비전랜드)  
 소년부 : 7월 12~14일(비전랜드)  
 어와나 : 8월 3~4일(광림교회)  
 중등부 : 7월 26~28일(비전랜드)  
 고등부 : 7월 26~28일(광림수도원)  
 영어예배부 : 7월 27~28일(광림교회)  
 어린이 축구교실 : 7월 26~28일(비전랜드)  
 중·고등부 아웃리치 : 7월 29~8월 1일(신안지도교회)  
 문의 : 교회학교 02-2015-1180

소현수 기자 camancow@naver.com

## 가족과 함께 오르는 <호렙산 기도회>, 거룩한 습관으로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 호렙산 기도회를 사모하며 기다려요.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최고의 기회이지요. 기도할 때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니 아이들의 불분명했던 신앙이 분명해지

고 있어요. 노아(고등부), 무아(중등부), 단아(영어예배부)가 성장하면서 제가 경험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체험하는 믿음을 갖길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가 교회학교에서 아름답게 믿음생활을 하는 강수정 성도(23교구)의 고백이다.

해마다 호렙산 기도회 기간 중 매주 토요일을 <가족과 함께 오르는 호렙산 기도회>로 지키며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모여 영적인 화합의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 100여 명이 넘는 많은 아이들과 부모가 새벽예배에 참석해 나라와 교회, 가정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은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몸에 익히며 기쁨의 천국잔치를 경험하고 있다.

6월 8일(토)에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특송을 불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성도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매주 토요일, 5주간 본당로비와 광림사회봉사관 2층 연결통로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의 출석카드에 도장을 찍어주고 완주 시에는 부서별로 선물을 증정한다. 7월 6일(토)에는 예배 후 안수기도회를 열어 자녀, 부모, 교사들이 축복기도를 받는다.

“엄마랑 뭐든지 하고 싶어 하는 주언이(유아부)는 토요일 새벽에 깨우면 신이 나서 함께 교회에 와요. 주언이와 승언이(영아부)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싶어 부지런히 예배에 데리고 가지요. 교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접하다보니 오히려 제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네요. 올해는 완주를 목표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녀에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해주는 부모가 되길 소망하고 있어요”라고 김경옥 성도(17교구)는 힘주어 말한다.

소현수 기자 camancow@naver.com

### 신앙 간증

#### 기대 이상을 선물로 주시는 교육선교

작년 이맘때 즈음, 처음으로 교육선교 팀장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호렙산에 올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순서였기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다”였습니다. 저의 대답은 “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팀장 자리에서 받은 은혜 중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하심을 제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교육선교 둘째 날, 아이들과 교사들은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여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지 저 역시 경험했었기에 혼자 뒤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자리가 조금은 외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때, 지역 교회 사모님께서 팀장님을 위해 꼭 한 번 기도해주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사모님은 저를 뒤에서 꼭 안아주시며 기도해주셨고, 그 품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제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왔을 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교대생 시절, 마지막 교생실습 때 처절한 실패로 마음 한 켠에는 그동안 배운 것이 아까우니 교사를 딱 5년만 하고 다른 일을 찾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었던 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용이 된 이후, 교실에서 아이들과의 삶은 즐거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일을 평생 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교사로서의 비전을 다시 한 번 주시고 그것을 교육선교의 자리에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자리, 팀원들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리,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평범한’ 교육선교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이천 교육선교 팀장을 섬기며 ‘평범함’을 기대하고 갔던 저에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선물해주셨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것을 선물 받고 오는 곳이 교육선교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다시 한 번 팀장의 자리를 놓고 호렙산의 자리에 올라 기도합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다시 한 번 용기내어 발을 내딛습니다. “예,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번 교육선교를 통해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최연혜 성도(청년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

- 목회현장 -



김황호 목사(광림남교회)

우리는 호렙산 기도회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동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 우리 모이는 예배의 처소를 성별하셔서 주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느끼며, 주님의 역사를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기도 자리를 사모하여 나아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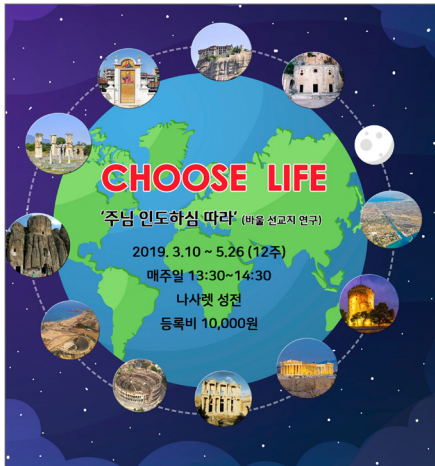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기도제목과 이유도 여러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믿음이 부족하여 연약한 믿음이 주님을 만나 강건해지기 위해 참여하시는 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자 찬양과 기도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호렙산의 여정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오지만,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의 믿음으로 귀결되어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있는 내게 함께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믿음, 연약한 믿음이어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응답하셔서 나를 굳건한 신앙인으로 곧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 언제나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내게도 주의 뜻에 따라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 모든 기도의 모습이 곧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광림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옛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받아 온 민족과 후손들이 주님의 축복 아래 살기를 기대하며 호렙산에 오르던 모세와 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주님의 몸 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된 말씀을 주시고 복된 삶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제31회 호렙산 기도회에 끝까지 참여하여 30년 동안 베푸신 은혜에 이어 주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여정 걷고 싶어

- 광림남교회 -



이번 츠즈라이프는 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바울의 선교지 연구’였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전도하였고 많은 교회를 터키에 세웠는데,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어서 늘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그 옛날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에 복음이 전파된 비결도 알고 싶었다.

지금은 한 사람 전도하기도 어렵고 개척교회를 세워 부흥시키기도 힘든데 무슨 힘이 사도 바울을 계속 움직여서 3차까지 전도여행을 하여서 우상에 젖은 이방인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어 많은 교회들을 세웠을까?

사도 바울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었고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어떠한 환경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을까 하는 호기심과 도전으로 참여하였다.

성경을 보면 옥에도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돌로 맞아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굶기도 했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쓰여 있다. 나도 바울과 같은 사람인데 무엇이 나와 다른가?

그를 계속 움직이게 했던 동력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것이다. 내 일생을 돌아보면 건대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을 하나님께 받고 살아왔는가를 돌아켜 본다.

참으로 허송세월을 한 것 같아 주님께 죄송스럽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말씀을 늘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므로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을 잘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아마도 30년 전쯤에 한 것 같다. 그러나 전도하는 것은 어렵고 만년 속장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미 이방인 전도자로 세우셨고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맞고 쫓겨나고 도망

하기도 하면서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불드심과 회복시키심으로 끝까지 나아갔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룬 것이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이를 것이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세우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언제 하늘나라에 갈지는 모르나, 다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고, 그 뜻을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며 인도하실 것이다.

원문자 권사 (광림남교회)

호렙산 기도회를 환히 밝힌 <십자가 전시회>

- 광림서교회 -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는 믿음

‘회복(Reconciliation)’의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제31회 호렙산 기도회>가 반환점을 돌며 기도와 찬양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광림서교회에서도 광림교회 본당과 동일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영적인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광림서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에 모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김정석 담임목사의 영적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충만한 호렙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호렙산 기도회를 기념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6월 16일(주)~25일(화)까지 열흘간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

전시회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새벽 4시 10분, 교회의 문이 열리면 영적인 감동과 은혜를 주는 크고 작은 십자가들과 예수님의 생애를 표현한 작품들이 성도들을 맞이하며 기도의 걸음에 힘을 더해 주었다.

이번 전시회는 광림서교회 이진순 성도의 아버지이신 이인영 집사(인천 계산교회)의 헌신과 노력이 담긴 예술 작품 111점으로 진행되었다. 새벽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의 동산에 오르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격려와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는 귀한 통로가 되었다.

작가 이인영 집사는 “병상에 계신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십자가들이 하나 둘 쌓여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작품들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수개월 동안 깊은 묵상과 작업을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영적 감동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라고 전시 소감을 밝혔다.

십자가 작품을 관람한 김은애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간접적인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뜨거운 감동이 전해졌습니다”라고 말했다.

안미선 성도는 “작품들을 보면서 말씀이 시각화되어 더욱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믿음을 붙잡는 결단의 기회가 되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번 전시회는 이웃들과 타 지역 교회들의 관람을 통해 광림서교회가 선교적 도구로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다. 요동치는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본질,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 광림서교회는 새벽마다 호렙에 올라 십자가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유병권 기자 ybkpower@empas.com



# 회심 후 감리교 태동시키고 가난한 자들 보듬은 <존 웨슬리>

존 웨슬리 회심 281주년 기념, 감리교 운동과 감리교 성화 주도하며 세상에 빛이 되는 삶 살아

## 존 웨슬리의 회심



존 웨슬리의 회심 기념비

존 웨슬리를 변화시킨 루터의 로마서 서문: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새롭게 탄생시킨다. 옛 아담을 죽게 하고 우리를 마음과 성품과 정신, 그리고 모든 힘으로부터 전혀 다른 인간으로 변화시키고 동시에 성령으로 힘 입혀 주신다. ...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아니 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묻기 이전에 이미 선한 일이 행하여져 있으며 또한 언제나 행하게 된다.”



존과 찰스 웨슬리 회심 알림판 존 웨슬리 회심 동판



존 웨슬리 스테인글라스



존과 찰스 웨슬리

## 존 웨슬리의 초기사역과 감리교회의 태동

1739년 존 웨슬리는 3,000명 앞에서 설교한 이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설교하였다. 폭도들의 폭행과 죽음의 위기를 수차례 겪었지만 그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설교를 하였다. 웨슬리가 옥외설교를 한지 한 달 만에 브리스톨 중앙 호스페어(Horsefair)에 땅을 마련하게 되었다. 웨슬리는 1739년 5월 12일에 감리교회 최초의 예배당인 뉴룸(New Room)을 간축하였다. 이곳은 최초의 속회가 결성된 곳이기도 하다. 1739년 11월 11일 웨슬리는 런던의 파운더리(The Foundry)의 한 철공장을 빌려 예배당으로 사용하다가 이곳을 매입하여 교회로 세웠다. 웨슬리의 활동은 처음 10년간 런던, 브리스톨에 집중되었고, 점차 콘월, 웨일즈, 아일랜드, 스코틀랜드로 확장되었다.



설교하는 존 웨슬리



아버지 묘비 위에서 설교하는 존 웨슬리



뉴룸 정문



뉴룸 내부



웨슬리하우스 입구 웨슬리 채플 내부 최초의 총회가 열린 웨슬리채플



무어필드의 파운더리



파운더리 채플의 본래의자



웨슬리하우스 기도실 웨슬리의 책장



웨슬리의 가운 웨슬리 강대상

## 갈등과 박해속의 존 웨슬리



그웰앤 피트 입구



18세기 사회적 갈등-말씀과 청중이 따로 놀다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내부적으로는 동역자 조지 헛핑드와의 갈등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성공회 감독 및 목사들의 비난과 공격이 있었으며, 전도 후기에는 폭도들의 박해도 있었다. 가정적으로는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겪었고 사회적으로는 여론과 비평으로 가혹한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웨슬리는 갈등과 박해를 극복하면서 감리교 운동을 더욱 건강하게 지속시켜 나갔다.



폭도들의 박해



성공회 감독 및 목사들의 비난과 공격

## 감리교 운동과 감리교의 성화

감리교 운동: 존 웨슬리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의 교회는 모든 선한 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믿는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기독교의 거대한 역병”이라고 했다. 존 웨슬리는 영역별로 구성된 속회 조직을 통하여 궁핍한 감리교인들에게 음식과 옷, 연료를 공급해주었다. 특히 당시에 영국제도에서 의료 지원이 모자랐던 터라 스스로 의학강의를 듣고 약사와 의사의 충고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간단한 의술을 베풀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런던에 처음으로 무료 의료시설소를 열었고 원시의학이라는 자기 나름의 응급 치료법을 소개하는 책도 썼다. 또한 1746년에는 웨슬리는 끼니를 잊지 못하는 여성들을 런던의 파운더리에서 무명실을 짜는 일에 고용하였다.



존 웨슬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모습



존 웨슬리가 선교한 교도소



과부와아이들



존 웨슬리가 선교한 병원



가난한 영국



뉴게이트 교도소에서 설교

감리교 성화: 존 웨슬리는 사회를 향한 시선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 18세기 영국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매우 심각하였다. 실업자, 과부, 고아, 노동자들이 궁핍과 기아 그리고 학대로 비참한 삶을 살았으며, 그 삶은 대물림되었다.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과 도둑질, 매춘이 판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의 아픔을 바라본 웨슬리는 빈민구제, 죄수 지원, 교육, 의료 지원, 노예제도 반대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를 향한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웨슬리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돕기 위해 모금 운동을 벌였다. 모든 회원들에게 1주일에 1페니씩 기부할 것을 요청했고 이 모금 운동은 런던에서만 20년간 14,000 파운드를 모금하여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 웨슬리는 82세의 고령에도 가난한 이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가가호호 방문하고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다녔다.

## 존 웨슬리의 죽음



존 웨슬리의 죽음



존 웨슬리



존 웨슬리의 묘비

1791년 3월 2일 웨슬리는 친구들과 찰스 웨슬리의 미망인 사라와 그의 딸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였다. 임종하기 전 웨슬리는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 존 웨슬리의 연보

- 1703년 6월 17일 존 웨슬리 출생
- 1709년 2월 9일 1702년 화재 발생 후 목사관 두 번째 화재 발생
- 1714년 1월 28일 존 웨슬리 차터하우스 입학
- 1716년 찰스 웨스턴스터 스쿨 입학
- 1720년 6월 24일 존 웨슬리 옥스퍼드 대학교,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 입학
- 1726년 3월 17일 옥스퍼드 대학교 링컨 칼리지 펠로우 선발
- 1729년 찰스와 신성클럽(Holy Club) 창설, 존 웨슬리 지도자 됨
- 1735년 사무엘 웨슬리 사망, 존과 찰스가 미대륙 선교 위해 조지아로 떠남
- 1738년 2월 1일 영국으로 돌아옴 5월 24일 존 웨슬리가 회심함
- 1739년 5월 9일 최초로 뉴룸(New Room) 교회를 설립
- 1741년 니콜라스 거리와 볼드윈 거리에서 시작된 밴드 모임 강화
- 1742년 속회 결성, 7월 23일 어머니 수산나가 사망함
- 1745년 맥스필드를 비롯한 평신도 설교자를 최초로 세움
- 1748년 킹스우드 학교 설립함
- 1749년 크리스천 문고(Christian Library) 출간
- 1751년 메리 바질(Mrs. Mary Vazeille)과 결혼
- 1778년 런던의 시티 로드에서 웨슬리 채플 봉헌
- 1787년 맨체스터 연회에서 최초의 여성 설교자 사라 말레트 임명
- 1891년 3월 2일 존 웨슬리 사망 / 3월 19일 웨슬리 채플에 묻힘



웨슬리 채플 정원에 있는 존 웨슬리 동상



# 광림 청년의 사랑과 헌신,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세우다

〈2019 청년부 교육선교〉 7월 25일(목)~ 8월 14일(수)까지, 전국 150여개 미자립 교회에서



**“저는 공군에 복무 중인 최재혁 상병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군 휴가를 모아 수원과 태백 지역 교육선교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저는 미약하지만 청년부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 하늘의 것을 나누는 교육선교

광림 청년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의 전달자로 나섰다. 〈2019 청년부 교육선교〉가 7월 25일(목)~ 8월 14일(수)까지, 전국 19개 지역 150여개 교회 1,200여 명의 어린이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보여주심’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육선교는 재정적인 문제와 교사, 교회학교 아동 수의 부족으



로 인해 자체적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열수 없는 전국 미자립 교회를 찾아 진행한다. 300여 명의 광림의 청년들은 호렙산 기도회 기간 기도으로 준비하며 각 지역에서 열릴 2박 3일 또는 1박 2일의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팀장을 세우고 팀원들을 모집하여 성경

공과와 찬양, 놀이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다.

## 선교를 통해 만난 아이들, 교회의 기둥으로

2007년 여름 처음 시작된 〈청년부 교육선교〉는 지난 13년 동안 60여 개 중소지방 지역에서 열렸다. 그동안 전국 구석구석 광림의 청년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교를 통해 만났던 아이들 중 일부는 청년이 되어 각 지역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졌으며, 섬김의 자리에 함께했던 광림의 청년들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승곤 성도(청년부 국내선교팀장)는 “교육선교는 저희들이 받고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면 늘 저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와요. 예년과 달리 호렙산 기간 동안 선교비용 마련을 위한 판매를 하지 않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라고 했다.

〈교육선교〉는 매년 광림교회 내의 남/여 선교회와 실업인선교회, 꽃꽃이선교회, 의료선교회, 광림 따뜻한 집 등의 후원이 있었다. 올해도 각 부서는 재정과 차량, 의약품, 의류 등을 지원해 청년들의 사역을 도울 것이다.

청년부 유용찬 목사는 매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전하며 “광림 청년들의 교육선교를 통하여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바라며, 섬기는 지역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좇아 세상을 살아갈 때, 광림의 청년들은 하늘의 것을 나눔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올해도 청년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 청년들의 도전에 힘을 실어주세요!

“기도와 후원으로 선교에 동참해주세요! 청년부에서 교육선교를 위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호렙산 기도회 기간 교회 마당에 가득했던 외침이 올해는 들리지 않습니다. ‘교육선교를 가지 않나? 청년들이 왜 판매를 하지 않지?’ 궁금해 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2019년에도 교육선교는 계속됩니다. 청년들은 그 어느 해보다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밤새워 샌드위치를 만들지 않고 다른 어떤 식품도 판매하지 않으며 후원함에 모금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2007년 시작된 교육선교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특별한 결단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역사를 보고자 기도하는 청년들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매년 호렙산 기도회 기간, 판매를 할 때마다 청년들에게는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선교의 주체인 청년들이 선교를 위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비용이 필요했기에 판매를 주님의 일이라 생각하며 진행해왔지만 늘 마음 한 편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올해부터는 철저히 기도로 준비하는 선교를 결단했습니다.

담임목사님과 교회의 지원 아래 국내선교 후원계좌를 공식적으로 개설하고 주보에 후

원계좌를 올렸습니다. 성도님들께 변화된 선교 준비과정을 알리기 위해 교회 곳곳에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하고, 본당 로비와 광림사회봉사관 연결통로에 사진전과 함께 기도카드를 준비해 중보기도를 요청 드렸습니다. 청년들은 성전 밖에서 후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호렙산 기도회에 올라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청년들을 통해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올해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역에 사용돼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를 살리는 이 귀중한 사역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광림청년부의 교육선교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703-739747

기독교대한감리회 광림교회

후원 문의 : 최형순 전도사(010-7106-3923)

최형순 전도사 (청년부)

